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진단검사의학과 최신 장비 도입

신속, 정확, 완벽한 결과 도출 기대

진단검사의학과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임상 결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최신장비인 '생화학 및 면역형광 자동분석장치 COBAS 8000'을 도입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 교체 완료된 응급화학 검사장비와 일반화학 검사장비는 기존 장비에 비해 검사 용량과 속도가 25% 가량 향상되어 진료과에서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단검사의학과 허희진 과장은 "이번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진단검사실의 효율성 및 검사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라며 진단검사의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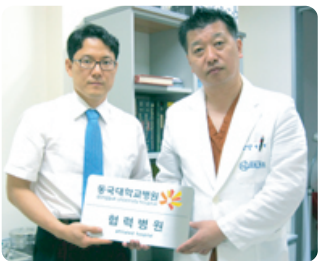
02 간호사를 위한 ACLS Simulation 교육 실시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간호부에서는 간호사의 임상간호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직간호사 실무교육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전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교육은 간호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된 43명의 임상실무강사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간호사 1인당 2시간씩 1:1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병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CPR 상황에서의 ACLS 내용으로 기도확보 및 기관 삽관, 심장압박, 응급약물투여, 제세동기 적용 등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별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교육을 마친 한 간호사는 "실제 CPR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부에서는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3 지역 병·의원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기관 체결 확대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달 병·의원 협력기관으로 '고운선형예소담한의원', '운정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성심정형외과', '의료법인 윤영의료재단 호원병원'과 추가 체결을 맺었다. 이 같은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기관 체결은 신속하고 긴밀한 협진 체계 강화로 이어져 지역 병·의원 공동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현재 309개의 병·의원과 협력을 맺고 있다.



04 케이블 GTV 메디컬 다큐〈신의 손〉촬영

여성 전문 케이블채널인 GTV에서 신규 제작하는 프로그램 〈신의 손〉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진들이 출연한다. 〈신의 손〉은 진료 및 수술 장면과 의사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 모습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45분 방송으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신경외과 김병철 교수를 시작으로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침구과 김갑성 교수 등 총 10여명의 교수들이 출연한다. 〈신의 손〉은 7월 중순부터 방송될 예정이며 촬영기간에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대한다.

알리미

SBS 100세 건강 스페셜

출연 : 가정의학과 김유일 교수 | 방송일시 : 7월 9일 오후 12시 30분

위시티 블루밍 건강강좌

주제 : 아이를 잘 키우는 한방비법 | 강사 : 한방소아청소년과 민상연 교수
일시 : 7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5단지 커뮤니티센터 내 연회장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 일시 : 7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율촌경로당

